

# 진도군, '일자리 4천개' 창출로 지역 기반 다진다

327억 투입·104개 사업 추진  
공공일자리·청년 등 집중 투자  
성경식품 공장 11월 가동 고용

진도군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붙였다. 25일 진도군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총 3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4개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 약

4천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일자리 대책은 공공부문의 직접 일자리 확대를 비롯해 청년과 중장년 등 연령층 맞춤형 지원,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등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군은 공공부문에 약 132억원을 투입해 취약 계층과 구직자를 위한 환경 정비, 지역관리, 공공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공익형 직접 일자리를 운영해 지역사회의 고용안정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을 돕는 맞춤형 정책에도 125억원의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군은 청년 인턴십과 직무 경험 지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예비 창업가를 위한 청년 창업스쿨을 통해 창업 전략과 회계 교육을 뒷받침한다. 이와 연계한 '식품 온라인 판매 창업 지원사업'으로 시제품 개발과 자금 등을 밀착 지원해 실질적인 창업 성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해 이들 계층에서만 약 700명의 핵심 일

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농수산업과 관광, 지역 공동체 기반 일자리 등 진도군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야에도 약 70억원을 별도 투입해 민간 부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고질적인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대처한다. 특히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한 대규모 민간 일자리 창출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진도군과 5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은 (주)성경식품은 현재 제2공장 건축 절차를 순조롭게 밟고 있으며, 올해 11월 마른김 생산과

인 5기를 우선 준공·가동에 들어간다. 2027년까지 5기를 추가해 총 10기의 생산 체제를 완비하게 되면, 128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약 1천2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해 지역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올해 추진하는 다각적인 일자리 사업이 군민의 취업 문턱을 낮추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진도의 산업 여건과 특성을 심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기자

## 완도군, 중대 재해 예방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통합...안전 관리 환경 조성

완도군은 25일 "산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대 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대 재해 예방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은 그동안 부서별 분산돼 관리한 안전·보건 데이터를 통합해 디지털 기반의 정밀하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축하게 됐다.

오는 7·8월 중 시스템이 구축되면 데이터 분

석을 통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 분야를 사전에 예측하고, 맞춤형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리 감독자가 시스템을 통해 현장의 안전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실무 중심의 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중대 재해 예방 통합 관리 시스템은 우리 군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무재해 완도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 전남광역자활센터, 저소득층 자립 생태계 구축

20억 규모 '중앙자활자금' 확보

전남지역 저소득층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이 본격화된다.

전남광역자활센터는 25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해 약 20억원 규모의 '2026년 중앙자활자금 위탁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자활사업 수행기관의 인프라를 개선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확보된 총 20억 2천700만원의 예산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6개 핵심 분야에 투입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자활기업 창업자금 ▲자활사업 경영관리 지원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및 전문인력 지원 ▲자활근로 사업장 환경개선 ▲자활센터 시설 개선 등이다.

센터는 지난 19일 '자활센터 시설 개선 지원

사업' 1차 대상지로 영암·장흥·하순지역자활센터 3곳을 선정하고, 총 1억5000만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광역자활센터는 이번 예산을 바탕으로 창업자금 약 6억원, 경영관리 지원 2억원, 사업개발비 3억원, 전문인력 지원 4억원, 자활근로 사업장 환경개선 4억원 등을 순차적으로 집행해 지역 자활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자활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후화된 사업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으로 개선해 사업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광역자활센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활기업과 참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 프랑스 명장 셰프들 강진 맛과 멋 '흠뻑'

MCF 소속 180명 팸투어 성료

청자·전통 식재료 등 매력 알려

강진군이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프랑스 명장 요리사 협회(MCF) 소속 셰프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우수한 식문화와 문화 자원을 알리는 팸투어를 성황리에 마쳤다.

25일 강진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방한한 프랑스 셰프 180여명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강진을 방문했다. (사진)

이들은 백운동 월림 다도 체험을 비롯해 한국 민화유지사업 관람, 쌀귀리와 전통 장류 등을 활용한 한식식을 맛보며 강진산 식재료의 뛰어난

매력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앞서 총회 식자재 대회에서 호평받은 수제 동백꽃 발효 식초에 이어, 고급 식기로 강진 청자의 활용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이며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두바이에서 온 식자재 컨설턴트 크리스토퍼 프라우드호메씨는 "귀국 후 청자와 지역 전통주 등 식자재 구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기태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세계 최정상급 셰프들에게 강진의 다채로운 매력을 각인시키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이번 방문 코스를 새로운 관광 명소로 적극 홍보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의 든든한 마중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강진=정영록기자



해남군 관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미술 수업을 통해 그린 그림을 들어보이고 있다. (해남군 제공)

## 해남군, 문화·여가·건강 아우른 경로당 탈바꿈

올해 598개 경로당에 51억 투입

운영·난방·냉방·부식비 등 지원

문화공방·실버활력교실 등 운영

해남군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경로당을 문화와 여가, 건강을 아우르는 맞춤형 생활공간으로 탈바꿈 한다.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51억원을 투입해 관내 598개 경로당 운영을 지원한다.

마을별 노인인구와 경로당 면적을 기준으로 경로당을 7단계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정부양곡, 부식비 등 총 4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양곡 지원과 별도로 군비 12억원을 부식비로 편성해, 경로당에서 직접 재료를 구입하고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경로당에는 따뜻한 집밥과 식사 지원은 물론

냉·난방비도 충분히 지원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60곳에서는 경로당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기는 '0088 행복한 경로당'을 통해 울동, 뇌체조, 치매예방 수업 등 레크리에이션과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공방 지원사업과 실버활력교실도 함께 운영해 배움과 활력이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온 문화공방 사업은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 경로당 긴급개보수 지원사업과 신축 및 기능보강(개보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TV·냉장고·에어컨 등 3종의 가전제품 교체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 지원사업, 어르신들의 관절 부담을 줄이는 입식테이블 지원도 실시되고 있다.

긴급개보수 지원사업과 고효율에너지 지원 사업은 해남군 자체 사업으로 신속한 시설보수와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을 위해 연 2회 정기 방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화재 및 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안전하고 계획적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외 함께 독거어르신이 공동생활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살피고 정서적 안정을 나눌 수 있는 돌봄공간인 '경로당 방끝보듬자리 지원사업'도 운영중이다.

공동생활을 통해 외로움을 덜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따뜻한 돌봄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지정된 경로당에는 읍소인원에 따라 연간 3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지원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 식사 공간을 넘어 문화와 건강을 함께 돌보는 공간"이라며 "어르신들이 99세까지 행복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 함평읍 중앙길 도시계획도로 전면개통

함평군은 25일 "읍내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중앙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7일부터 전 구간을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협 함평군지부부터 국토정보공사까지 이어지는 중앙길 620m 구간이며, 기존 협소한 도로 구조로 인한 삼중적인 차량 정체와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군은 도로 폭을 기존 7m에서 18m로 확장하고, 일방통행 체계를 양복 4차선으로 전환하는 등 도로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양측 보행로를 신설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회전교차로 3개소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도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더불어 보행로에 롤링포그 시스템을 도입해 여름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요 교차로에는 함평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경관 조성도 추진한다.

중앙길 일대는 함평군청, 읍사무소, 경찰서, 어울림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행정·생활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중앙길 전면 개통을 통해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기자



영암군은 지난 20·22일 2박3일간 영암서울농장을 운영했다. 사진은 농장에 참여한 도시민들. (영암군 제공)

## '농촌 체험' 영암서울농장, 도시민 발길 잇따라

2박3일 체류형 프로그램 인기

영암군이 운영하는 농촌체험시설 '영암서울농장'이 도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25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20·22일 2박3일간 올해 첫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모집 단계부터 정원을 초과하는 신청자가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체험과 문화 탐방, 지역민과의 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영암의 생활과 문화를 직접 경험했다. 체류를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는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암군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이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로 확장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 재방문과 체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군은 지난 10일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해 숙소 시설을 확충하고, 향후 취약계층과 이주배경 가정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영암서울농장이 도시와 농촌을 잇는 체류형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이 머무는 영암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